

“타인 외면하는 개인주의는 지옥”

연극 ‘스크루테이프 부인의 레시피’
싱어플래닛, 9일 미로극장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모티브
인간의 본성 ‘선악’에 근원적 질문

‘나’와 ‘너’를 구별하면서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개인주의야말로 ‘지옥’이다. 스스로의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이타적인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연극이 펼쳐진다.

싱어플래닛(대표 신해은)이 제2회 정기공연 ‘스크루테이프 부인의 레시피’를 오는 9일(오후 4시, 7시), 10일(오후 5시) 미로극장 2관에서 연다. 공연은 C.S루이스의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모티브로 상상력을 가미, 인간 본성을 생각 해볼 수 있도록 각색한 것이다.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을 유혹하는 실력을 인정받아 ‘지옥심연승고부’ 차관까지 오른다. 그의 아내 몰리는 지옥에서 승승장구하는 남편의 성공이 자신이 만든 ‘영혼 유혹 레시피’ 덕이라 믿는다. 레시피에는 ‘인간에게 최고의 쾌감을 맛보여 줬다가 절망을 선사하라’는 말이 쓰여져 있다.

한편 신임 악마가 된 조카 포이즌은 몰리 부인을 찾아와 이색적인 거래를 제안한다. 이 둘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인간을 유혹하는 ‘술책’을 시작하는데...

이 같은 시놉시스는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서 주인공 파우스트를 유혹하던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겹쳐 보인다. 이번 공연에도 인간의 자유 의지와 신앙심이 시험대에 오르지만, 주인공 ‘크리스티나’가 끝내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다.

공연에 기획한 의도가 궁금했다. 기획자 신해은(여·31) 씨는 “수년 전 지하철에서 원작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다가 인간 본성과 선악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떠올라 기획했다”며 “악마들은 인간에게 따른 성취를 맛보여주기도,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 같은 악마의 모습은 우리네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배우로 활동하다가 작년부터 공연 기획까지 겸하게 됐다”며 “저부터가 크리스천이라 그런지 공연을 제작하며 나 자신, 가족, 신앙



‘스크루테이프 부인의 레시피’에 출연하는 윤미란(왼쪽부터), 채운정, 그라시아 배우. <싱어플래닛 제공>

심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극중 악마들은 인간을 ‘환자’라고 부르며 때론 이들을 잡아먹거나, 지옥에서 ‘잘 나가’기 위해 유혹하기도 한다.

작품은 윤택있는 전개와 흥미롭게 각색된 줄거리로 이목을 끈다. 악마들이 신의 이타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향하는것도 관람 포인트 중 하나.

‘몰리 스크루테이프’ 역은 윤미란 배우가 맡는다. 고참 악마인 남편보다 유명해지고 싶은 야망을 품고 있는 인물로, 자신의 레시피로 유혹하지 못할 영혼은 없다고 믿는다. 중견배우인 그는 광

주연극제 우수연기상 등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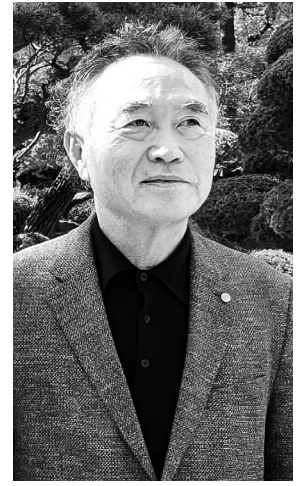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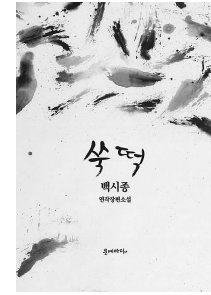
스크루테이프의 조카인 ‘포이즌’은 그라시아 배우가 연기할 예정이다. 숙모의 레시피로 순진한 크리스티나를 유혹해 지옥에서 승진하고자 하는 배역이다. 그라시아는 영화, 드라마와 예능에서 감초 역할로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MBC드라마 환상의 커플에서 ‘간자’ 역을 맡았으며 SBS드라마 ‘운명과 분노’에도 출연했다. 채운정 배우는 극중 작가 지망생인 ‘크리스티나’ 역을 맡는다. 전석 2만 원, 인터파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80년 세월 돌아보는 먹거리 고해성사”

여수 출신 백시중 소설가 장편소설 ‘썩떡’ 발간

여수 출신 백시중 소설가. 백 작가는 지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모두 4권의 창작집과 11권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가히 왕성한 필력이다.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80세인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작가다. 대체로 작가들이 80세를 전후에 창작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묵하 ‘집필중’이다.



백시중 소설가

쏟아낸 소설들은 작품성을 인정받아 ‘누란의 미녀’로 김동리문학상, ‘황무지에서’로 이병주국제문학상, ‘여수의 눈물’로 세종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최근 백 작가가 연작장편소설 ‘썩떡’ (문예바다)을 펴냈다.

광주에서 열린 제9회 세계한글작가대회 참석차 광주에 온 작가를 만나 소설의 모티브와 창작 과정 등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백 작가는 “80살 긴 터널을 빠져나오며 깊숙이 숨겨 두었던, 지난날의 과오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꾸밈없이 드러내놓기로 작심했다. 일종의 먹거리 고해성사”라며 “물론 더 많이 취하기 위한 탐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생존과 결부된 식탐이었는지 아닌지 여부는 먹거리 앞에서는 예의도 의리도 도리도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썩떡’이라는 소설의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시골에서 자란 기성세대에게 썩떡은 친근한 먹거리이자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주식이었다.

왜 하필 ‘썩떡’을 제목으로 했느냐는 물음에 작가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썩떡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양껏 먹어본 기억이 없다. 그만큼 먹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온 셈”이라며 “여수민 중항쟁을 겪었던 1948년도 그러했고, 6·25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전후 잣더미 폐허 속에서 시작한 초등학교 시절도, 허구한 날 졸졸 굶어 눈앞이 캄캄했던 기억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7편의 중편으로 연작 형식을 띤 일종의 ‘성장소설’이다. ‘눈물과 함께 먹은 삼계탕’을 비롯해 ‘짜장면, 그리고 탕수육’, ‘통무김치와 보리밥’, ‘마가린 간장 비빔밥’, ‘된장 콩알과 배에서 말린 분홍빛 생선’ 등의 작품은 긴밀히 연결되면서 제각기 한편의 이야기를 구성한다.

이승하 평론가는 “이 소설의 이야기들 자체가 자신의 실수, 과오, 범죄 같은 것들에 대한 너무나도 솔직한 고백이다. 이 진술한 고백 앞에 감동받지 않는 독자는 없을 것이다”라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 ‘이게 다 먹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하는 말이 실감나는 소설들”이라고 평한다.

한편 백 작가는 동아일보-대한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오영수문학상, 채만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구 인문·역사·문화 ‘스티커 투어’

동구문화관광재단 다음달까지...5곳 이상 방문시 기념품

동구의 인문, 역사, 문화 등을 알아가는 이색적인 ‘스티커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 문창현)이 진행하는 ‘동구에서 놀 사람 여기저기 붙여라, 착붙동구’가 그것이며 다음달 말까지.

방법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동네책방을 비롯해 제로웨이스트가게, 예술영화전용관 등 새로운 트렌드와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만나 볼 수 있는 공간(지도)을 다니며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다.

먼저 ‘사색공간’ (이것은 서점이지 아니, 소년의 서, 금호시민문화관, 동구인문학당)을 비롯해 ‘환경친화’ (오션클라우드, 몽몽만남, 베이커리 빵과 장미), ‘문화-예술-관광’ (광주극장, 비움박물관, 산수씨리, 여행자의 ZIP) 등 총 11개의 장소로 이루어져 있다.

김정국 관광마케팅팀장은 “이번 행사는 동구 관광을 재미있게 즐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스티커 투어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스탬프를 찍는 방식은

인구 번짐과 같은 단점과 불편함이 있어 붙이는 것으로 방법을 변경했다”며 “다양한 인문자원과 문화 역사 관광 자원이 산재한 동구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동구를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번 스티커투어는 11개 운영거점 어디에서나 시작이 가능하다. 장소 방문 후 제공받은 스티커를 드로잉 지도에 부착하고 ‘여행자의 ZIP’에서 인증하면 된다. 스티커 5개 이상 수집은 하프완주로, 10개 이상 수집은 풀완주로 간주되며 기념품이 지급된다.

한편 문창현 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는 “드로잉으로 표현된 동구 골목 지도에 스티커를 붙여나가다 보면 흥미롭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골목골목에 깃은 우리 문화와 역사, 인문자원이 동구의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학교예술강사들 올해 성과 발표

내일까지 5·18기념문화회관·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별난 연구 실험실’, ‘만화 프로그램-캐릭터러벳지 아트’...

올 한해 진행된 학교예술강사들의 성과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명 ‘NOW. ART FESTIVAL’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이 오는 6일까지 5·18기념문화회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등에서

여는 이번 발표회는 각종 사업 성과를 엿볼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성과 전시에서는 학교예술강사 팔색팔인특을 비롯해 탄탄대로 공개수업 등 기획 사업 결과를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명코칭 백명 대표의 ‘인사이드 아웃-감정치유코칭’ 특별강의가 열렸다. 백 대표는 감정

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 등을 매개로 학생들의 행동과 수업응대 방식 등에 대해 설명했다.

2일에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두더지 콘텐츠의 ‘만화 프로그램-캐릭터러벳지 아트’, 문화예술 in 우림의 ‘시각예술 프로그램-블랙라이트’ 등 체험프로그램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정인서 서구문화원장은 “이번 발표회는 지난 1년간 일선 학교에서 진행한 학교예술강사들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자리”라며 “향후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데크의 세대교체!”



품질보증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